

# 마당극 탈피, 새양식 찾는 대학극

## 대학문화, 어디까지 왔나

문화란 흔히 생활 양식이다 라고 일컬어진다. 대학에도 대학인 나름의 문화가 여러 측면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 본보는 연극, 노래, 그림, 문예, 풍물, 춤 등의 예술분야 문화물 자체의 발달 과정과 더불어 현실 인식에서의 비판성을 가지고 다루고자 한다.

먼저 대학 민족극 운동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대학문화, 대학가 노래, 그리고 대학사회에서의 풍물을 순서로 하여 이들의 생성·성장의 흐름과 현재의 양상 및 오류를 짚어본다. 현 대학문화운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편집자註)

대학극의 주체는 대학생이다. 그리고 조금 더 좁혀 말하면 연극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이다. 물론 연극·영화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연극활동이 대학극의 개념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대학극활동에 종사해 온 대학극 주체들의 역할이 아직 연극 전공학생들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말이다.

한편 대학극의 주체를 대학 연극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연극이란 말이 주로 서구에서 들어 온 연극양식(무대극)을 가리키는 말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서구적 연극이 아닌 전통민중연희에 바탕을 둔 연행활동을 주로 해온 주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연극이란 말로 개념짓는 것에 대해 강한 정서적 저항감을 나타내 왔을 뿐더러 사실 오늘에 이르러 대학극 운동-학생운동의 이념에 부합하는 문예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연극운동-이라 부를 수 있는 운동적 토대를 닦은 이들은 대학 연극반이 아닌 탈출반이었기 때문이다. 조금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대학연극반이 80년대 중반까지도 서구 연극 공연을 주로 하는 보수상의 질곡에 빠져있던 것에 비해 각대학의 탈출반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학생운동의 중심역량으로 기능하면서 학내에서 활발한 연행활동을

대중의 생활공간에 가까이 연극을 가져가려 노력 했을 지언정 서구적 연극 양식 그 자체를 당대의 민족적 양식으로 변형시키려는 데엔 별다른 노력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년중만 이후 대학에서는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된다. 자기변혁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전형성에 크게 못미친 상투화, 말장난에 그친 풍자, 감동없는 억지진리의 높이판에 그쳐 점점 학생대중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에 진출한 마당극은 생활현장에서 민중들의 정서와 욕구, 표현방법을 터득하며 민족적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 근·현대연극사에 대학생 비중 커 지나친 계도성은 학우대중 외면 초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성연극계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배출해왔다. 그리고 현대 '여대생 관객'이란 비아냥도 있었지만 기성 연극계의 공연에서 대학생 관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고 민족극 계열의 극단들도 주 수입원을 대개 공연으로 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연극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역할이 이렇게 큰 것에 못지않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할 것이니 우선 신극을 도입한 동경유학생들이 연극을 전한 광대짓으로부터 예술로 끌어올린 공로와 비례하여 그들의 엘리트 의식과 신극 우월주의의 영향으로 전통민중연희의 가치는 외면당했던 것이다. 이들의 보수적 연극관이 이렇게 신극 도입 당시에 뿌리내렸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일제 하에서 진보적 연극운동을 펼쳤던 좌익 연극인들조차 경향성 있는 작품을 공연하거나 극장의 벽을 넘어

대학극의 진보적 전통은 잘알려 있다시피 70년대 이래의 탈출부흥운동과 극히 일부 대학의 창작극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탈출부의 전통성과 민족적 현실 비판성, 역동성에 힘입은 탈출부흥운동은 삼시간에 전국의 대학가에 뿌리 내리면서 민중생활현장에까지 뻗어 나갔으며 창작극 운동과 만나면서 마당극이라는 새로운 연극양식을 탄생시켰다. 이에비해 창작극 운동은 그저 서구 연극이 아닌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공연하는 정도에 그쳐서로는 별로 운동성을 담고 있지 못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운동의 가치를 들수 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의 연극계가 보수적이었던 사실과 함께 그 파지도 한두대학의 연극반의 일이었을 뿐 일반적 호응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보수성은 탈출부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당대 현실을 민족적 입장에서 극복하려는 운동에 철저히 복속하는 실천의 과정에서 탄생한 마당극을 통해 비로소 진보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마당극은 대학과 민중생활 현장에서 집회, 모의정무, 선전·선동, 놀이, 교육 등으로 기능하며 '민중'을 비롯하여 몇가지의 전 시회를 가졌으며, 노학 연대의 차원에서 작년 현대 중공업 굴리었

연극 주체가 스스로 몸을 낮추어 대중 속으로 가는 과정에서 양식자체가 바뀌어야

을 펴왔던 것이다. 더구나 아직도 많은 대학의 연극반이 여전히 보수적 연극관에 사로잡혀 진보적 연극운동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비록 대학극운동에 걸맞은 활동으로 '체질개선'한 연극반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연극반 일반을 대학극의 주체라 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탈출반과 기타 연행활동을

이마에 팜팜물이 맺힐 정도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사회 사진연구소'는 남영동의 아담한 일식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당시 개인적으로 분산되어 사 진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하나로 뭉치면서 본 연구소는 시작되었다. 민중의 진실된 삶의 모습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 활동을 사진의 주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 단체는 지난 88년 미국서 개최한 '반을 넘어서'를 비롯하여 몇가지의 전시회를 가졌으며, 노학 연대의 차원에서 작년 현대 중공업 굴리었

정희섭 (민중극 연구회 회원)

## “사회 사진 연구소”

이마에 팜팜물이 맺힐 정도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사회 사진연구소'는 남영동의 아담한 일식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당시 개인적으로 분산되어 사 진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하나로 뭉치면서 본 연구소는 시작되었다. 민중의 진실된 삶의 모습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 활동을 사진의 주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 단체는 지난 88년 미국서 개최한 '반을 넘어서'를 비롯하여 몇가지의 전시회를 가졌으며, 노학 연대의 차원에서 작년 현대 중공업 굴리었

화인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평가를 날 것이다. 오늘날 대학극 담당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진다. 전업적 연극인이 아닌 아마추어 대학극패로서 처음부터 안아야 하는 전문성의 한계, 관적인 학생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의 태부족, 전체 학생운동과 연극(예술)활동의 위상이 제대로 잡히지 못한 데서 오는 조직적 갈등, 학생운동 이념의 비약적 전진과 학생대중의식과의 괴리, 자칫 빠지기 쉬운 관념적 과격성과 구조주의의 늪 등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필자는 가진 바 역량의 부족과 경험시기의 차이로 적합한 조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앞 절의 역사에서

◇지난해 제1회 민족극 한마당에서 선보였던 극단 '태'의 '못생긴 얼굴' 중 한 장면

강조했듯이 연극 주체가 스스로 몸을 낮추어 대중속으로 가야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연극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함을 힘주어 말하고 싶다. 이즈음의 진보적 대학극에서 자주 엿보이는 계몽주의적 계도성은 대중추수를 거부하는 선전성에 입각한 선전·선동이 아닌 대중으로부터의 고품을 자초하는 방향이 될까 걱정스럽다. 따지고 보면 대학극의 새단장은 이제야 시작인 셈이다. 과감하게 대중의 바다로 몸을 던져 크고 너른 광대한 활개를 펼칠 수 어보자!

정희섭 (민중극 연구회 회원)

## 문학초점 박완서 소설의 여성학적 접근

### 페미니즘 비평, 관심 고조 제기마련



◇좌: 조혜정 (교수)

우: 박완서 (소설가)

평론가 정영자씨는 '현대 인기소설의 특성과 그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박완서는 부끄럽없이 너무나 기호하게 여자들을 요리하고 있는 여성학대 소설가이다. 그러나 보여주고 느끼게 할 뿐 더 이상은 없다'라며 박완서를 전통적인 여성상에 비추어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한국여성사연구회'는 소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들어 '자식을 둘러싸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벌어지는 밀고 당기는 식의 삼부드라마 수준...여성문제를 계급문제나 민족문제로 무관하게 순전히 남녀대립 구도만으로 파악하고 있다.' (창작과 비평, 1990)고 비판했다.

우리 문단에서 페미니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점검 해내고 있다. 조혜정 교수는 박완서를 비평했던 범주에 넣고, 작가와 작품들을 삼부드라마·비전문적으로 평한 '남근 중심적 비평'과 '작품에 대한 예정은 있으나 남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남성중심적 비평'과 '여성해방운동은 민족·민중운동과 맥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밝히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여성해방문학 비평'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박완서 비평에 흐르는 이데올로기의 억압성을 꼬집었다. 또한 작품 전체에 배어있는 '여성주의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현 사회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를 일상속에서 훌륭히 집어내고 있다'고 박완서 문학의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박완서 문학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관점에 반발하면서, '작가세계'를 통해 그의 작품을 여성학의 시각에서 분석한 두 여성학자의 주장이 눈에 띈다. 먼저 박혜란(이화여대·여성학)강사의 평론 '여자들의 겹겹'은 세련된 소설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있는 억압의 다양한 양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포착하고 있다...그가 여성억압의 구조를 그 뿌리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여성들을 당당히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해방의 전망을 제시한 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덧붙여 박완서의 주인공들이 모두 일을 가진 여성들로 그려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화해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해를 벌여주는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그 능력을 가졌다

는 사실자체만으로 억압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림으로써 남성지배체제의 교묘한 장치를 고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겹질을 벗고 꿈꾸기를 멈춘 여성들이 그 후에 맺게될 사회관계에 대한 전망이 암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뒤이어 조혜정(연세대·문화인류학)교수는 평론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에서 박완서의 작품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평론들을 분석, 현재



◇거제도 대우 조선소 임금 투쟁 현장의 작품 사진

### 英 字 日 刊 紙 The Korea Herald 直 營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 외국어특강

개강 → 4월 1일

**독 해**  
Korea Herald 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 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 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중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학, 어휘력, 청취력**  
기분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미국식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 (일본·교과)**  
미국식교과서영어 → 기초영어완성 → 영어 실력기초 → 성문기초영어 → 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에 위한 1월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인회화/박성원 (일본 → 교과) SCREEN 회화, NHK 회화/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서**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 학원

#### 시청 영어회화

제77기과정 모집 안내

개 강: 1991년 4월 9일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에 비추어 수강생들로 12명내외로 반편성

●수준테스트는 매일2회 실시합니다 (11:30AM, 6:30PM)

교육과정: 1월 2시간 주5회 (월~금) 수업,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미국 Harvard 대학출신등 고학력 수준의 전원 Native Speakers

●수업시간●  
7:00~8:45AM 10:00~12:00AM  
5:00~7:00PM 6:00~8:00PM  
7:00~9:00PM 8:00~10:00PM

●무역영어 과정  
●TOEFL종합반, 러시아어  
●한국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 회 연수원

### 개 강 4월 1일

영 어·일 어 러 시 아 어 TOEFL600 GRE2000 GMAT700

종각역·종로 2가 734-2442

## 시사영어학원

###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 대학인의 지혜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제10회

**논 제**  
○전환기의 통일외교와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  
○북한사회 개방화를 위한 실천 전략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과제  
※ 위 논제중 택 1

**대 상**  
대학 재학생 (전문대학 포함)

**시 상**  
○최우수작 1명: 부총리 겸 통일위원장상 및 장학금 100만원  
○우수작 2명: 부총리 겸 통일위원장상 및 장학금 각 50만원  
○가작 5명: 부총리 겸 통일위원장상 및 장학금 각 30만원  
○장려 5명: 부총리 겸 통일위원장상 및 장학금 각 20만원  
※ 각기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는 소련·독일 등 해외연수기회 부여

**마 감**  
1991년 8월 31일

**분 량**  
200자 원고지 기준 80내외 (단, 5매 내의 요약내용 동시제출)

**발 표**  
1991년 10월중 (개별통지)

**보낼곳**  
통일원 교육홍보과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기 타**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논문 제출시 제하증명서 1부 첨부  
○상세한 내용은 통일원 ☎ 02-738-7522 또는 소속대학 통일문제 유관 연구소에 문의

## 통 일 원

### (주)시사영어사

현 대 시사영어사 외국어 학원

TOEIC 강좌개설

(旧 현대 외국어 학원)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 TOEFL
- 영어순회
- 일본어 초·중·고급회화
- Voc. 22,000
- 영어실용기초
- 일본어 독해
- 영작문 연구
- 실용영어회화
- NHK 회화
- 성문 종합영어
- 영어회화(한인) 스퀴어
- AFKN 회화
- 영어회화(미인)
- 중국어 초·중·고급
- 성문 기본영어
- 일본어 초·중·고급
- 중국어 독해
- Word Power
- 일본어 회화
- 중국어 회화

개강 4월 1일 수시등록

파고다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 4395~7/ 5081~2